

코스피지수	1771.44	↓	-183.33
코스닥지수	524.00	↓	-90.60
환율 (원·달러)	1218.00	↑	+16.50

지수는 13일 종가, 등락은 주간 집계.

비즈 프리즘 | 코로나19로 생긴 변화...재택근무·언택트 소비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주주총회도 온라인 중계

SKT, 26일 첫 온라인 주총 진행
두레이, 화상회의 접속률 25배 ↑
개학 연기에 홈스쿨링 서비스 인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전개되면서 회사 업무와 기업 경영, 학생들의 학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다. e커머스 등 언택트 소비 플랫폼 이용이 빠르게 자리잡고 있으며 재택근무가 늘고 홈스쿨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우선, 기업의 중요한 행사인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상황이 등장했다. SK텔레콤은 26일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날 총회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해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으로 중계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의 주주가 2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를

정기주주총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 경영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SK텔레콤(왼쪽)은 26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했고, 재택근무 기업이 늘어나면서 NHN의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를 활용한 화상회의 접속률도 대폭 상승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NHN

통해 신청하면 접속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회사 경영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관련 응답시간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당일 현장에 직접 참석하는 주주들의 안전을 위해 입구에서 발열 체크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감염방지를 위한 재택근무도 늘었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들이 1089개 기업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재택근무 실시 의향’을 물어본 결과 5곳 중 2곳(40.5%)이 현재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NHN의 클라우드 협업 플랫폼 ‘토스트 워크플레이스 두레이’의 화상회의 접속률은 2월 26일부터 늘어나기 시작해 3월 첫 주에는 2월 같은 기

간과 비교해 약 25배나 증가했다. 협업툴 서비스인 프로젝트, 메신저, 메일 기능의 접속 트래픽은 하루 평균 약 30%가 늘었다. 2월 27일 무상지원에 결정된 이후 일평균 신규 가입자는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약 4배 증가했다.

유치원을 비롯한 각종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면서 홈스쿨링 서비스 이용도 많아졌다. KT에 따르면 올레 tv의 ‘우리집이 키즈카페’ 테마 이용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7.5배 증가했고, 트윈들 요가&발레 테마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선호 콘텐츠도 기존에는 캐릭터, 율동동요 등이 인기가 높았지만, 요즘은 누리과정 영역별 큐레이션과 요가·발레·태권도 등 문화센터형 콘텐츠 이용이 늘었다는 것이 KT측 설명이다. KT는 이달 말까지 올레 tv ‘키즈랜드 TV 홈스쿨’ 특별관을 열고 156개 테마로 구성된 3700여 편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현대차, 투르크메니스탄과 대형버스 400대 계약

733억으로 역대 두 번째 계약 규모
기존보다 안전·편의사양 대폭 강화

현대자동차는 현대중합상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에 27인승 대형버스 ‘뉴 슈퍼 에어로시티’ 4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약 6000만 달러(약 733억

원) 규모로 단일 버스 계약으로는 2016년 500대 공급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크다. 현대차는 2008년 500대를 시작으로 4년마다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에 버스를 공급하고 있다. 2012년 200대, 2016년 500대 등 지금까지 총 1200대를 공급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슈하바트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는 모두 현대자동차 에어로시티이며, 이번에 계약한 뉴



현대차 27인승 대형버스 ‘뉴 슈퍼 에어로시티’.

슈퍼 에어로시티도 시내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뉴 슈퍼 에어로시티는 후방카메

라, 후방경보장치 등 안전 및 편의 사양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대자동차는 5월부터 버스 생산을 시작해 투르크메니스탄 중립국 선포일 25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12월 12일에 맞춰 버스가 운행하도록 공급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에어로시티의 우수한 성능과 품질이 투르크메니스탄 시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같아 영광이다”라며 “2008년부터 이어져온 버스 공급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가속도
공정위에 기업결합심사 신청 접수

제주항공(대표이사 이석주)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해외시장 중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준비가 끝나는 데로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끝나면 잔금을 납부하고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후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30일 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필요 시 최대 90일을 연장해 120일까지 가능하다. 제주항공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사가 어려움을 겪는만큼 신속한 인수 거래 종결을 위해 공정위 심사가 조기에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재무구조의 개선, 운영효율 극대화, 안전운항체계 확립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인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이스타항공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이 없어 최종인수 전까지 이스타항공의 경영진 책임아래 당면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스타항공의 경영난을 빠르게 해소하고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관련 부처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해외여행·돌잔치 등 ‘위약금 상담’ 전년비 8배 폭증

해외여행, 전체 건수 45% 차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해외여행이나 돌잔치 등의 위약금 분쟁이 크게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15일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1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주요 5개 업종의 소비자상담 건수가 1만568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1배나 늘었다고 밝혔다.

위약금 상담이 가장 많은 분야는 해외여행(7066건)이다. 전체 건수의 45%를 차지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돌잔치 등 음식서비스로 무려 22.2배나 늘었다. 이외에 항공여객

(2543건), 숙박시설(2042건), 예식서비스(1829건) 등도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관련 상담 건수가 많았다.

이 기간 동안 위약금 불만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680건인데, 역시 해외여행이 3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돌잔치, 항공여객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2월부터 전담 피해구제팀을 2개팀으로 늘렸다. 또한 늘어

나는 위약금 분쟁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선언 등에 대응하기 위해 16일부터 ‘코로나19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코로나19 사태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만큼 위약금 분쟁 시 소비자와 사업자가 한 발씩 양보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항공노선 운휴로 인천공항에 주기중인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은 운항을 하지 않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해 주기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동아DB

대한항공,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
조원태 회장의 ‘역발상’ 코로나 대책

대한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노선 운휴와 감편을 극복하기 위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한다. 여객기가 공항에 계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객기에 화물만 실어 운항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13일 현재 전체 124개 노선 중 89개가 운휴상태다. 수요 감소로 인한 감편으로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86% 줄었다.

여객기와 화물기 활용은 조원태 회장의 아이디어로 알려졌다. 조원태 회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유휴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해 화물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공급선을 다양화하고 주기료 등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한항공은 운휴중인 베트남 호찌민 노선에 13일부터 20여 톤의 화물을 탑재할 수 있는 A330-300 여객기를 투입해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들의 긴급 물량과 한국발 농산물 등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또한 칭다오에도 21일부터 여객기를 이용해 화물을 수송하는 등 대상 지역과 품목을 넓힐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 휴장 23일까지 연장

강원랜드는 13일 행정동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카지노 영업장 휴장을 23일 오전 6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2월 23일 휴장에 들어갔다. 이번 결정으로 강원랜드 카지노는 1달째 휴장을 맞게 됐다. 이와 함께 하이원리조트 및 전 영업장도 22일까지 휴장한다. 강원랜드는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반영해 일주일 단위로 휴장 연장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김재범 기자

똑닥, ‘마스크 구매 알림’ 서비스 출시



모바일 간편 병원 예약접수 서비스 ‘똑닥’을 운영하는 비브로스(대표 송용범)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마스크 구매 알림’ 서비스(사진)를 내놓는다. 사용자의 마스크 구매 가능 요일마다 자동으로 앱 알림(푸시)을 통해 주변 판매점의 위치와 재고량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앱 알림 창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똑닥이 제공하는 ‘실시간 마스크 지도’ 페이지로 이동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한 후 알림 제공과 위치정보 제공을 동의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용운 기자